

민주당 비명계 ‘연쇄 탈당’ 이달 중순 분수령

이상민 의원 탈당 여파 촉각
원칙과 상식 “중순 이후 결단”
지도부 혁신안 수용여부 주목
이낙연, 연일 이재명 저격 눈길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혁신계)의 원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거취와 관련 당에 변화가 없으면 이달 중순 이후 결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과는 거리를 뒀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맞물려 연쇄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이원욱·윤영찬·조웅천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혁신안 수용 여부에 따라 연말께 거취를 결단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출범 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12월까지 도덕성과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회복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도부의 답변 시한으로 이달 중순을 제시했다.

‘원칙과 상식’은 전날 간담회에서 “당(혁신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최종 결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이 탈당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해법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독자 노선을 택한 이 의원의 행보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추가 탈당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12월 중순까지 당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 평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누차 말하지만 탈당이나 신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12월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원칙과 상식은 10일에는 당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당원들을 모아 대규모 토론회를 연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비주류 혁신계 당원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세를 불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의 행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연일 저격하는 것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평균만큼은 정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국면에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결론이 난다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는 등 제3지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민주주의실현행동’은 지난달 26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추가 탈당 가능성은 다고 보면서 비명계의 세 결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최근 두 달여 동안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두 차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만남에선 친낙계인 윤 의원이 이석재, 원칙과 상식 측도 김 전 총리

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 전 총리는 최근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도부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움직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인터뷰가 정치 재개 선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기여할 상황이 되면 움직이겠다”며 역할론을 부인하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이낙연·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반명(반이재명)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강성지지층인 ‘개딸’의 과격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정치 개혁 약속을 파기하고 병립형 회귀를 밀어붙이면 분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병립형으로 밀어붙이면 서 거기에 개딸들의 거의 폭행, 테러에 가까운 행동이 있으면 오히려 분당을 부추길 수가 있다”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국회의장까지 당을 사당화로

몰아가는 데 대해 다들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선거 앞두고 분란을 안 일으키려고 그동안 다들 입 다물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은 심상한 조짐이 아니다.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면 상당히 심각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이 잘 화합하고 추슬러서 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낙연 대표님은 민주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커리어”라며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것은 이낙연 대표님으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인이고 당의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드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힘 “국정운영 새 동력”… 민주 “총선 도주 개각”

여야, 부처 개각 반응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정부가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자 “국정운영의 새로운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서 자질과 능력 등을 꼼꼼히 검증할 수 있도록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국정 성과와 개혁 완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오늘의 개각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 후보자들 모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됐으며, 국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한 최적의 적임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와 발목잡기 청문회를 지양하고 국정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

을 통해 “국민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의 불통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불통 개각’이자, 반성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찬물 개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상목 경제수석을 경제부총리에 중용해 경제정책 전반을 맡기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며 “윤 정부에 도덕적 결격 사유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윤 대통령의 지시를 충직하게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며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개각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국정 실패의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개각이라는 점”이라며 “국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마땅한 사람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총선에 내보내겠다고 판을 깔아준 꼴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병훈 “동·남구 행안부 특교세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을·사진) 의원이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동구에 3개 사업비 12억원, 남구에 2개 사업비 8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확보된 특교세는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4억원 △도심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 4억원 △월남동 등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4억원 △사직동 시간우체국 5억원 △광주교 노후시설물 보수·보강 3억원 등이다.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과 푸른길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사직동 시간우체



국 사업의 특교세가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 노후시설물과 세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예산도 확보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세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돼 동, 남구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연탄 나눔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연탄나눔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낙연, 신당 창당설에 “때가 되면 말할 것”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

이낙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기다림에도 바닥이 났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제3지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 위기 중 핵심적 정치 위기는 신뢰받지 못한 양 정당이 극단으로 투쟁하다보니 아주 생산적이지 못한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걸 저지하기 위해 하나의 대안으로 제3세력의 결집이라는 모색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은 제 인생의 걸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제3세력 중 기대감과 눈높이를



맞춘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엔 “제가 얘기하면 큰 뉴스가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김부겸 전 총리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도 “믿을만한 사람 모시고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고 상당 부분이 문제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양당이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라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 새로운 비전을 가진 분, 양자택일에 너무 속박돼 있지 않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의 사법리스크가 재차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인가 잘 판단하고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마치 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면서도 “총선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좋은지 아닌지는 당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 대해선 “위기의식을 가지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저의 기다림도 이제 바닥이 나고 있다”며 “효과가 없겠지만 도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정체성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